

FTA Issue Report

FTA이행지원센터 <http://support.krei.re.kr> 콜센터 1899-4114
제8호(2015.02.16.) 발행처_한국농촌경제연구원

■ 미국산 신선오렌지 수입 및 생산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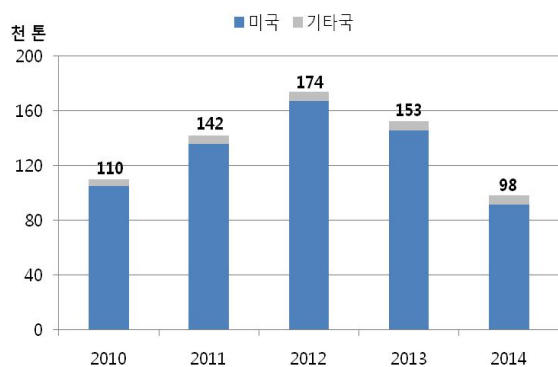


미국산 신선오렌지 수입 및 생산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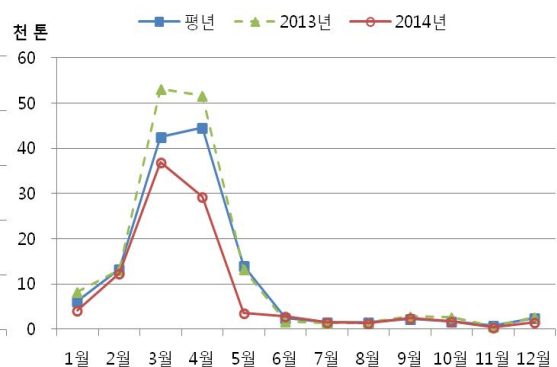
□ 2014년 오렌지 수입량은 냉해와 병충해에 따른 미국산의 생산량 감소로 급감

- 2014년 신선오렌지 수입량은 9만 8천 톤으로 전년도 대비 35.6% 감소
 - 그 중, 미국산은 9만 1천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2.7%를 차지
 - 미국 외에 남아공(4.1%), 칠레(1.8%), 스페인(1.2%), 호주(0.1%) 등에서도 수입
- 미국산 신선오렌지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은 주산지의 냉해와 병충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
 -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오렌지의 2013/14년 생산량은 냉해로 전년 대비 약 8% 감소
 - 같은 기간, 플로리다산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도 HLB(황룡병 또는 감귤녹화병) 발생으로 전년 대비 약 20% 감소
-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 감소는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짐
 - 2014년 미국산 신선오렌지 수입단가는 kg당 1.71달러로 전년도 대비 34.1% 상승
 - 남아공산과 스페인산 수입단가는 kg당 각각 1.06달러와 1.11달러로 미국산보다 낮은 수준
- 미국산 신선오렌지 전체 수입량의 약 60~70%가 3~4월에 집중
 - 미국산 신선오렌지는 주로 1~5월 수입되며, 나머지 기간에도 소량 수입됨
 - 남반구에 위치한 남아공, 칠레, 호주 등으로부터는 주로 8~11월에 수입됨

〈연도별 오렌지 수입 동향〉



〈월별 오렌지 수입 동향〉



자료: 관세무역개발원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.

□ 2014/15년 미국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.6% 증가할 전망

- 심한 가뭄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강우량 증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
 - 그러나 작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012/13년 생산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
- 네이블을 포함한 非발렌시아 오렌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지역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9.9%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
 - 이로 인해 非발렌시아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4.3%, 2012/13년 대비 19.3% 감소할 전망
- 플로리다산 작황호조로 전체 발렌시아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.3%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
 - 2014/15년 플로리다산 발렌시아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7.2%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, 2012/13년보다 17.3% 적은 수준

〈미국의 오렌지 생산 동향〉

단위: 1,000박스

구 분		2011/12	2012/13	2013/14(a)	2014/15(b)	증감(b/a)
非발렌시아	플로리다	74,200	67,100	53,300	48,000	△9.9
	캘리포니아	45,500	42,500	39,000	40,000	2.6
	텍사스	1,108	1,499	1,400	1,670	19.3
	소계(A)	120,808	111,099	93,700	89,670	△4.3
발렌시아	플로리다	72,500	66,500	51,300	55,000	7.2
	캘리포니아	12,500	12,000	11,000	10,000	△9.1
	텍사스	311	289	376	345	△8.2
	소계(B)	85,311	78,789	62,676	65,345	4.3
합계(A+B)		206,119	189,888	156,376	155,015	△0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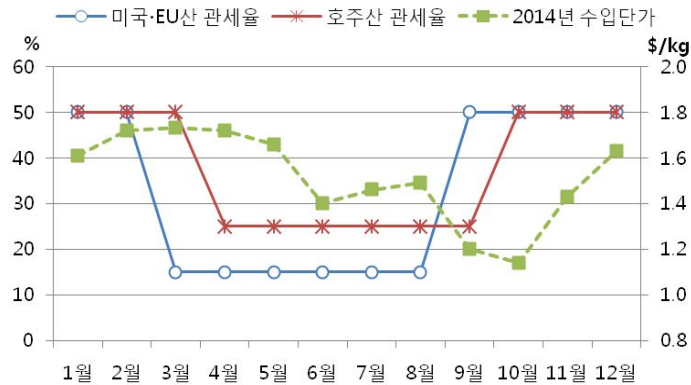
주: 1) 플로리다산 1박스=90파운드, 캘리포니아산 1박스=80파운드, 텍사스산 1박스=85파운드
 2) 2014/15년 생산량은 잠정 추정치임(2015.2.10)
 3) 非발렌시아는 네이블(navel)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miscellaneous, 텍사스의 tangerines, 플로리다의 temples를 포함
 자료: 미국 농무부 통계서비스(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, USDA).

□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 증가, 한호주 FTA 발효 등은 오렌지 수입 증가 요인이나, 미국 서부지역 항만노조 태업 등은 수입 감소 요인

-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, 수입단가 하락, FTA 이행에 따른 관세인하 등은 신선 오렌지 수입 증가요인
 -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오렌지의 2014/15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.6%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
 - 2015년 1월 미국산 신선오렌지 수입단가는 kg당 1.54달러로 전월 대비 5.5% 하락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4.3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 - 2015년 3~8월 미국산과 EU산 오렌지에 대한 협정관세는 전년도 20%에서 15%로 하락

- 2014년 11월 11일 한·호주 FTA 발효로 호주산 오렌지에 대해 계절관세가 적용됨에 따라, 2015년 4~9월 기존 50%의 기본관세가 25%로 하락

〈FTA 체결국별 오렌지 협정관세(2015년 기준)와 월별 수입단가〉



- 미국 서부지역 항만노조의 태업 등은 신선오렌지 수입 감소요인
 - 미국산 수입이 집중되는 3~4월까지 항만노조 태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체 신선오렌지 수입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
 - 항만노조 태업의 장기화로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고 증가로 수입단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음

〈참고문헌〉

한국농촌경제연구원. 2014. 미국 오렌지 생산 감소와 수입 동향. FTA 이슈 리포트(제1호).
 _____ . 2014. 한·호주 FTA 주요 내용 및 협정문(내부자료).
 _____ . 2015. 2014년 4분기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 동향.
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(www.gtis.com/gta).
 USDA(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). 2015. February Forecast Maturity Test Results and Fruit Size: Citrus(2월 10일).

작성자 : 지성태 부연구위원, 최수안 인턴
 감 수 : 정민국 연구위원